

“수능 시간표대로 훈련 등 체력 관리… 오답 위주 복습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보완·정리 등 취약점 보완하고 가림막 등 바뀐 고사장환경 염두 마스크 착용 사전에 적응해야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현재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전과는 다른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오답을 줄이는 게 이시기 학습전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마무리 학습의 요체는 실수로 틀리지 않고 최대한 오답을 줄이는 것”이라며 “점수를 더 올릴 영역, 점수를 유지할 영역 등을 구분하고 부족한 개념과 단원에 대한 보충 학습을 해나간다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영역별로 2~3문제 정도는 충분히 더 맞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무리하게 고난도 문제를 공략하기보다 다실수가 잦은 유형이나 단원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복습하는 편이 좋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미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반복하는 데 집중하고, 정리하면 서 불확실하거나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

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아는 문제라도 확실히 맞힐 수 있도록 익숙한 교재로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도 전략이다. 국어와 수학영역에 비해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기 좋은 탐구영역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특히 3~4등급의 중위권 수험생이라면 탐구영역에서 1~2개 문항만 더 맞히면 등급이 바뀌거나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남은 기간

탐구영역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지금부터는 수능 시간표대로 모의고사 푸는 훈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핵심은 자신의 신체리듬을 수능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시험을 치르는 데 있다”면서 “수능은 120%를 준비해야 실전에서 비로소 100%가 나오는 시험이라 할 만큼 많은 변수가 많은 만큼, 실제 시험 시간의 70~80%만을 활용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가림막 설치 등 바뀐 고사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이번 수능에서는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비밀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수험생의 책상 앞쪽에는 가림막까지 설치된다.

일반 수험생은 방사형, 벨브형 등을 제외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당일 갑작스런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난 경우나, 고사장 입실 전 시행하는 체온 측정에서 37.5도 이상 나올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시험 당일 발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정해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마스크 착용도 사전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원격 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수능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클 수 있다”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은 수준의 수능이 될 것이라는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현안은 수능을 안정적으로 무사히 치르는 것”이라며 “수험생 자가격리자·확진자 정보는 방역당국과 이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전국에 격리시험장을 113개 정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대, 병무청 병역특례연구소로 지정

기초과학연구소 신규 지정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

인천대 기초과학연구소가 병무청이 지정하는 ‘2020년 병역특례연구소’에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병역특례연구소 제도는 대학연구소가 석·박사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기회를 부여해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석·박사 연구원 중 현역입영대상자가 대학연구소에 편입돼 3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병역을 마치게 된다.

인천대는 이번 병역특례연구소 지정을 계기로 우수한 인재유치를 통해 해



인천대 전경.

양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우수한 선진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현 소장은 “바다와 접해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해양 생태

계 활용을 통한 미래 해양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및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연구·교육·학술 사업들을 통해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천대 기초과학연구소는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기반 원천소재 개발 및 해양자원 재활용 플랫폼 구축’ 과제로 2017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연구는 60억원 규모의 연구사업으로 2026년 2월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다문화기관 5곳과 실습 등 MOU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협력 맞손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가 수도권 다문화유관기관 5곳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소장 김영순)는 지난달 21일과 28일 인하대 서호관 308호에서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 인천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배영), 평택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정우),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영), 부

천 상호문화학당(대표 김진희) 등 5개 기관과 MOU 체결식을 열었다.

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에 컨설팅과 지역사회정책을 제안하고 다문화교육학과 석·박사과정생의 교육실습과 연구를 위한 공동협력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전국에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지역유관기관들과 교류협력력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위한 공동연구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2021 THE 세계대학평가’ 세종대 생명과학 국내 5위

세종대는 영국 고등교육평가 기관인 THE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 학문분야평가에서 생명과학 부문 국내 5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THE 세계대학 평가는 세계 150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연구실적 ▲논문 피인용도 ▲국제화 ▲산학협력수입 등 5개 평가 항목에 총 13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세종대 생명과학 부문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순위 상승을 했다. 2019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3위, 2020년에는 국내 9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4계단 상승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한남대, 대학혁신 위해 ‘맞손’

인적자원 교류 지원 등 협력키로

한신대 대학혁신추진단과 한남대 대학혁신사업단은 지난달 30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한신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대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대학의 혁신을 견인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행정 및 경영 우수 사례 공유 ▲인적 자원의 교류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신대 조현식 팀장과 한남대 권선영 팀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신대

한편, 한신대와 한남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자율협약형)을 수행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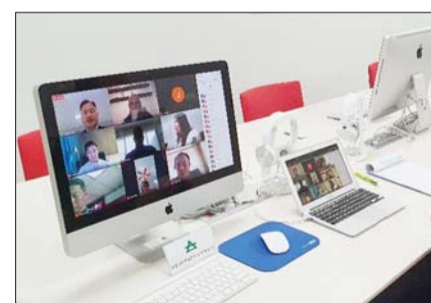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 ‘국제지뢰행동 분야’ 역량 강화

민·관·군 대상 온라인 연수 성료

서울사이버대는 최근 민·관·군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지뢰행동 이해제고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사이버대와 평화나눔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했다.

이번 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마련됐으며,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소말리아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강사 및 연수생들이 참가했다.

총 10일의 연수 기간 중 7일은 연수생이 주교재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로 지뢰의 피해자 지원, 젠더적 접근, 비기



‘국제지뢰행동 이해제고 및 프로그램 관리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가 온라인 연수’. /서울사이버대

술 및 기술 조사, 환경영향평가, 지뢰 제거 등 연관 사업 및 프로그램 적용 기준 등이 교육으로 이뤄졌다. 마지막 3일 동안은 실시간 웨비나로 강사와 연수생 간의 주제별 토론뿐만 아니라, 민·군 연수생으로 구성된 7개의 그룹이 지뢰행동 거버넌스의 비교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분석 및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